

어문생활사로 나아가는 열린 시야

조동일 *

I. 시작하는 말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국어사와 국문학사가 있다. 국어사는 국어의 내적 역사이다. 언어구조 자체의 변화를 다룬다. 국문학사는 문학의 역사이다. 문학이 아닌 말과 글은 돌보지 않는 것을 관례로 삼는다. 그 두 학문에서 이론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국어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를 함께 취급하는 학문 영역이 있어야, 언어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문학의 역사를 말과 글의 전반적인 쓰임새를 밝히면서 고찰해야, 문학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 두 작업이 겹치는 영역을 어문생활사라고 할 수 있다. 어문생활사는 국어사와 국문학사를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이라고 해도 좋다. 어문생활사는 언어·문학·역사를 함께 다룬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문생활사의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향을 잡고, 일거리를 찾는 데 필요한 탐색을 해보기로 하자. 외국의 선례를 먼저 들어 참고로 삼고, 몇 가지 가능한 작업을 예시하고자 한다.

II. 외국의 선례

어문생활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선례

* 서울대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를 들어보자. 프랑스어는 우리와 크기가 비슷한 민족국가의 언어이고, 어문 생활사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선례를 그대로 따르자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하면서 더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용하기 쉬운 책부터 듣다.

이창순, 『프랑스어사 개요』(신아사, 2000)는 국내의 저술이지만 프랑스 학계의 동향을 보여준다. 프랑스어의 역사를 라틴어와의 관계, 내부적인 다양성, 외국으로의 전파 등을 들어 고찰하면서, 정치, 사회, 문학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과 관련시켰다. 불어와 영어의 경쟁도 다루었다.

마르셀 꼬엥, 김동섭 역, 『불어사: 언어별달과 사회 변천사』(어문학사, 1996)는 1947년에 나온 책의 번역이다. 부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어의 역사를 사회사의 관점에 서술했다. 사회사에 입각한 시대구분을 하고 각 시대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언어를 변화시켰는지 고찰했다.

R. Anthoney Lodge, *French, from Dialect to Standard* (London: Routledge, 1993)에서는 라틴어에서 프랑스가 생겨나고 표준불어가 나타나 보급되는 과정을 취급했다. 표준어와 지역어, 고급어와 저급어의 관계를 각도로 고찰했다. 지도와 도표를 많이 사용했다. 언어사에서 어문생활사로 나아갔다.

Priscilla Parkhurst Clark, *Literary France, Making of a Cultur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에서는 프랑스문학의 문화사적 의의와 사회적 특성이 시대에 따라 변천한 양상을 고찰했다. 지역 활동의 영웅인 작가들이 언어의 표준화와 통일을 위해 기여한 공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힘썼다. 문학사에서 어문생활사로 나아갔다.

Colette Beaune, *Naissance de la nation France* (Paris: Gallimard, 1985)에서는 프랑스 국가의 정치적 통일을 프랑스어의 표준화와 보급과 관련시켜 고찰했다. 민족국가 형성에서 언어가 수행한 과업을 해명했다. 정치사의 관점에서 어문생활의 문제를 연구한 업적이다.

Jacques Chaurand dir., *Nouvelle histoire de la langue française* (Seuil, 1999)는 프랑스어의 역사를 여러 학자가 함께 집필한 본격적인 저술이다. 시대별로 분담해, 해당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전반적인 양상과 언어의 특질

을 연결시켜 고찰했다. 언어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를 합치는 작업을 다양하게 했다.

Rézeau ed., *Dictionnaire des régionalismes de France* (Bruxelles: De Boeck Duclot, 2001)는 프랑스어 사용의 지역 특유 어법 사전이다. 특이한 어휘 또는 특이한 용법으로 쓰인 어휘를 다양한 성격의 많은 문현을 이용해 찾아낸 결과를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지역의 구두어에서 발견되는지 현지조사를 한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자 가운데 그 어법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백분율로 나타내고, 사용자가 많은 지역을 지도에 표시했다. 프랑스 국립국어연구원(Institut National de la Langue Française)의 업적이다.

Yves Gallo et Yves Le Gallo dir., *Histoire littéraire et culturelle de la Bretagne* (Paris-Spezed: Champion-Coop Breizh, 1997)에서는 프랑스의 한 변방 브르타뉴 지방에서 라틴어·브르타뉴어·프랑스어가 어떤 관계를 가져왔는지 다각도로 고찰한 방대한 저작이다. 한 지역의 어문생활사를 자세하게 연구한 작업의 좋은 본보기이다.

Daniel Blampain dir., *Le français en Belgique: une langue, une communauté* (Bruxelles: Duclot, 1999)는 베르기에서 사용되는 프랑스어의 실태와 특징을 다각도로 조사해 서술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언어 적극 이용하고, 분석의 관점을 다양하게 했다. 사진과 도판을 많이 넣었다.

III. 대외관계 경험과 언어 사용

동아시아 각국은 통문(通文)과 통어(通語) 두 가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통문은 한문으로 쓴 글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공식문서인 국서(國書)를 써 가지고 가고, 사사로이 만나 필담(筆談)을 하거나 한시를 주고받는 것이 통문의 기본형태이다.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는 것은 통어이다. 통어를 하는 행위를 통변(通辯)이라고 했다. 통문 담당자가 말을 하고자 하면 역관의 통변 신세를 져야 했다.¹⁾

1) ‘통문’과 ‘통어’에 관한 논의를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화』(지식산업사, 1999)에서 전개했다.

통문과 통어의 역사는 삼국시대에부터 시작되었으나, 어느 정도 자세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사정이다. 대외관계사, 사역원(司譯院) 역학서(譯學書) 연구 등에서 하던 작업을 연행록 연구와 연결시켜 전면적인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 다른 문명권의 경우와 비교하는 데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외교사절은 통문 담당자와 통어 담당자로 이루어졌다. 통문 담당자는 사대부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시문에 능한 문인이 선발되어 정사, 부사, 제술관 등의 직책을 맡았다. 통어 담당자는 역관이었다. 역관의 임무는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맡으면서 전문지식을 간직하고만 있었다. 사대부는 어쩌다가 한 번 자신의 임무를 맡아 외국에 가는 신기한 체험을 했으므로 기행문을 썼다. 통문의 글인 한문을 쓰는 것도 사대부라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행문에 역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내용에서는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는 사신이 한 해에 몇 번 이상 가서, 많은 기행문을 썼다.²⁾ '조천록'(朝天錄)을 대표적인 명칭으로 한 명나라 기행이 140여종, 흔히 '연행록'(燕行錄)이라고 한 청나라 기행은 290여종이 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을 다녀와서 쓴 기행문은 '해사록'(海槎錄)이라고 하는 것이 예사인데, 지금 여기서 함께 고찰하지 않는다.

연행록은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관계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썼는지 소상하게 알려준다. 국서의 '통문'에서 일상생활의 '통어'까지의 전 영역을 보여준다. 중국인, 중국에 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관심 있게 살폈다. 중국인 역관의 조선어 학습과 사용에 관해서도 기록했다. 연행록을 자료로 해서 「동아시아의 통문과 통어」라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만하다.³⁾ 연행록은 또한 글쓰기의 한 표본이다. 한문으로 쓰는 것이 관례였으며, 조정

2) 지금부터 거론하는 자료는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한국문학통사』 1-5 (지식산업사, 1994)에서 가져왔다.

3) 2002년 10월에 나는 북경외국어대학에서 조선어과 학생들을 상대로 「東亞的通文和通語」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제목과 주요 용어를 중국어로 적고, 우리말 설명을 보태는 방식을 썼다.

과 관계를 가지고 한문에 능숙한 소수를 상대로 한 다소 비밀스러운 저술이었다. 그런데 내용이 흥미롭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독자들도 읽고자 하는 요구를 막을 수 없었으며, 국문으로 된 것까지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문으로 쓰는 것이 도리어 유리할 수 있었다.

이덕형(李德潤)이 1624년(인조 2)에 쓴 『조천록』(朝天錄)을 국문으로 옮겨 『조천론』 또는 『수로조천록』이라고 한 것이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번역의 예이다. 『갑자수로조천록』은 국문 이본이 셋이나 전하는데 작자 미상이고, 원본을 확인하기 어렵다. 김창업(金昌業)의 『연행일기』도 국문본이 있다.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국역본도 일부 발견되었다. 그밖의 다른 연행록도 국문으로 옮긴 것들이 있다.

홍대용(洪大容)이 1765년(영조 41)에 청나라에 갔던 견문을 기록한 『담헌 연기』(湛軒燕記)는 사항별로 구분해서 작성한 사실 보고서이다. 청나라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모습을 세밀하게 관찰해 북벌(北伐)에 대한 북학(北學)의 반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 결과 여행기다운 흥미를 갖추지 못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행문을 쓰는 작업을 다시 했다.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이라는 것을 국문으로 쓰고, 일기체를 택했다. 신변에서 일어난 일이나 개인적인 감회를 정감 어린 필치로 나타내, 국문을 즐겨 읽는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했다.

한문본은 없고 국문으로만 쓴 연행록도 있다. 1798년(정조 22)에 서장관의 임무를 맡아 청나라에 갔던 서유문(徐有聞)의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나타낸 생각도 특이해, 원래 우리 땅이었던 요하 이동을 오랑캐에게 내주고 해동 일우에 국척해 있는 처지를 한탄하는 말을 자주 했다.

국문연행록은 어문생활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외국 경험, 외국어 와의 접촉을 국문으로 나타내고, 한문으로 쓴 것을 옮기면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언어 사용이 확대되고 어법이 다양해진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한문과 국문, 중국어와 한국어의 관계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연구 대상이다. 경서나 일부 시문 언해류만 살핀 것은 잘못이다. 중국소설

번역에 많은 자료가 있어,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여행록을 함께 다루어 확대해 어문생활사에 관한 많은 문제를 고찰하고, 국어사전을 제대로 만드는 데 써야 한다.

IV. 글공부의 양상

‘上下男女’의 개념을 사용해 글공부의 역사를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上男’이 한문을 사용하면서 중세가 시작되었다. 중세후기에 만든 국문을 ‘上女’가 자기 글로 삼았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는 글공부가 확대되어 ‘下男’도 국문을 익히고, 한문 공부도 하려고 했다. ‘下女’마저도 글공부에 관심을 가졌다. 근대가 되자 ‘上男’이 한문 대신 국문을 공용어로 삼고, ‘下女’도 국문 사용해 동참해 어문생활의 평등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18세기 전후에 하층의 남녀가 글공부를 한 양상을 말해주는 자료를 몇 들어보자.

(가) ‘下男’의 국문 사용

1708년경에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요로원야화기』에 ‘진서’는 못하더라도 ‘언문’을 잘 해서 시끌 마을에서 ‘결복’(結卜)을 마련한다고 하는 김호수(金戶首)라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다. ‘결복’이란 세금 액수이다. 농민 가운데 ‘호수’라는 대표자가 선발되어 이웃 농민들의 농사 형편을 조사해 세금 액수를 정해 관가에 알리는 일을 했다. 김호수는 국문을 잘 하는 덕분에 그 일을 맡아 “가계 부요하고 성명이 혁혁하다”고 했다. 재산도 모으고 명성도 났다는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고담을 박람”해서 부러움을 산다고 했는데, ‘고담’이란 바로 국문소설이다.

“낮이면 농사를 짓고 정방중이면 언문자(諺文字)나 뜯어보고”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머슴의 말을 전하는 시설시조가 있다.

김홍도(金弘道, 1725-?)가 남긴 풍속화에 부모가 뜻자리를 짜는 곁에서 아

4) 박재연교수가 그 일을 해서 『고어스전』(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화연구소, 2001)과 『中朝大辭典』(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화연구소, 2002)을 내놓았다.

이는 글공부를 하는 장면이 있다.

(나) '下男'의 한문 공부

중인 신분의 시인 천수경(千壽慶, 1757-1818)은 글을 잘 가르쳐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향(委巷)의 부호들이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투어 초치했다. 학생이 모두 50~60명이나 되어 반을 나누어 교육을 할 정도였다. 범도가 매우 엄했다고 했다.

(다) '下女'의 글공부 참여

김려(金鑑, 1766-1821)는 「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이라는 시에서, 백정의 딸로 태어난 여주인공 방주(蚌珠)를 양반에 속하는 파총(把摠)이 며느리로 삼겠다고 한 사건을 들어, 신분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방주는 백정의 딸이지만 부지런하고 활기찬 집안에서 어여쁘고 예절 바른 처녀로 자라났다는 것이 시발점이다. 한 대목을 들고 번역해보자.

六歲識繅絲 七歲通諺書 八歲髮點漆 學姊能自梳 時向華燈下 朗吟謝氏傳 微風送
逸響 琮琤破玉片 九歲辨晉字 十歲曉歌詞 短闋山有花 延嚦益淒其

여섯 살에 실 자을 줄 알고, 일곱 살에 언문을 깨쳤네. 여덟 살에 윤기 흐르는 까만 머리, 언니 본떠서 혼자 빗질을 하네. 밝은 호롱불 아래 앉아, 사씨전을 낭랑하게 읽으면, 선들바람이 귀여운 목소리 실어 쟁그렁 구슬 깨지는 소리로 다. 아홉 살에 한자를 알고, 열 살이 되어서는 가사를 깨쳐, 산유화 짧은 가락을 목을 뽑아 애처롭게 부르네.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백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미련하고 무식한 것은 결코 아님을, 해마다 있었다고 하는 일을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 납득할 수 있게 보여주었다. 건강하고 아리따운 모습으로 자라나면서, 길쌈하고, 자기 몸단장하는 일을 일찍 익혔을 뿐만 아니라, 글공부도 하고 노래도 익혀 모자랄 것이 없다고 했다. 글공부를 한쪽만 하지 않고 국문을 익혀 소설을 읽으면서, 한자도 안다고 했다. 노래를 통해서는 기층문화의 유

산을 이어받아, 상하의 교양을 모두 쌓았다고 했다.

문자 해득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난관이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열심히 한다. 동원 가능한 자료는 무엇이든지 이용해 오랫동안 힘써 연구한 결과는 18세기 말 2천 6백만 독일인 가운데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10만, 독일어책을 읽는 사람은 30만쯤 되었다고 추정된다.⁵⁾

독일의 경우가 그렇다고 한 것이 유럽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독일은 선진국인 프랑스, 후진국인 러시아 중간에 위치한 중진 국이어서 유럽의 평균적인 사정을 알 수 있게 하는 본보기이다. 18세기까지는 물론 19세기 중엽까지도 유럽이 문자해득이나 독서인구에서 선진지역이었다고 하기 어렵고, 동아시아보다는 뒤떨어졌다고 생각된다. 유럽의 경우와 동아시아의 경우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동아시아가 유럽보다 앞섰다는 증거가 여럿 있다.

18세기 한국의 인구는 독일보다 훨씬 적었다. 그런데 독일의 라틴어에 해당하는 한문을 잘 알아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15만에 이르렀다. 1866년에 한국의 강화도를 침공한 프랑스 군인들은 책과 독서 능력에 관한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론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겼다.

동양에서 감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어디든지 책이 있는 것이다. 글을 해독할 수 없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다. 프랑스에서도 문맹자에 대해 여론이 그만큼 엄격하다면 무시당할 사람들이 천지일 것이다.⁶⁾

한국에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도 책이 있고, 문맹자는 드문 것이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특기할 사실이라고 했다. 읽을 줄 모르면서도 한국의 보물

5) 헬무트 키젤·파울 뮌히, 오용록 역, 『18세기 독일의 사회와 문학』(춘천: 강원대출판부, 1993), 169면

6) M. H. 쥐베르, 여동찬 역, 『1866년 프랑스의 강화도원정기』, 『문화사상』 82 (서울: 문학사상사, 1979), 이경선, 「‘병인양란’과 ‘강화도원정기’의 비교 연구」, 『한국문학과 전통문화』(서울: 신구문화사, 1988), 147면에서 재인용

은 책이라고 여겨 강화도 소재 외규장각에 보관하고 있던 귀중본을 다수 약탈해갔다.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한국에 머물면서 실물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내놓은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1894)는 보물 목록이다. 한국의 책은 중국의 도자기, 일본의 그림에 상응하는 인기를 누렸다.

전통사회의 발전이 최고도에 이르고, 외부의 충격은 닥쳐오지 않은 19세기가 시작될 무렵을 비교의 기준점으로 삼자. 일본 학자들은 그 시기에 일본이 문자 해득률에서 가장 앞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국문 사용에서는 한·일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둘 다 유럽 어느 나라보다 앞섰다. 그러나 한문까지 알아야 글을 안다고 할 수 있었다. 국문과 한문을 둘 다 아는 사람의 수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을 것이다. 과연 그런지 자세한 연구를 해야 한다.

V. 언어 통일

전국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게 된 언어 통일 과정은 특히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1930년대에 맞춤법을 통일하고, 표준어를 사정하자 비로소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 전에도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시조는 물론이고, 가사의 경우에도 전라도 사람 송순(宋純), 경상도 사람 박인로(朴仁老)의 작품에서 사용된 말이 서로 다르지 않다. 국문소설은 전주에서 간행된 완판본까지도 언어가 거의 통일되어 있다. 1900년대의 신문이나 잡지에 충청도 사람 신채호(申采浩), 전라도 사람 이기(李沂), 경상도 사람 장지연(張志淵), 황해도 사람 박은식(朴殷植)이 쓴 글에서도 방언 차이를 찾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 든 사례는 모두 서사어이다. 구두어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구두어가 근접되어 있는 조건에서, 서울에서 국문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표준서사어를 전국 각처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두어가 어느 정도 근접되었던지 알아내는 것은 방언사 연구의 소관이다.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방언의 양상을 과거까지 소급시켜 이해할 수 있

지만, 문헌 자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점에 관해 유의양(柳義養, 1718-1788)이 아주 소중한 자료를 남겼는데 어학에서는 돌보지 않는다.

현감을 거쳐 홍문관 및 사헌부에 재직하던 유의양은 1771년(영조 47)에는 경상도 남해도로, 1773년(영조 49)에는 함경도 종성으로 두 차례 귀양을 갔던 일을 국문으로 기록해 『남해문건록』(南海聞見錄)과 『북관노정록』(北關路程錄)을 남겼다. 좀처럼 가보기 어려운 곳의 생활상을 실감 나게 묘사하는데 국문의 장점을 발휘했다. 그러면서 남북 두 곳의 방언이 서울말과 다른 점을 실례를 여럿 들고 풀이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적지 않았는데 몇 달 지나니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북관노정록』 쪽을 들어보자. “여기에 사투리를 후에 보도록 약간 기록한다”고 하고서 30여개 어휘를 소개했다.

어미를 위미라 하고, 형을 형애라 하고, 오라비의 처를 올집어미라 하고, 아우는 더린이라 하고, 도토리를 밤이라 하고, 밤은 참밤이라 하고, 호박은 동화라 하고, 동화는 참동화라 하고, 수수는 숙기라 하고, 옥수수는 옥숙기라 하고, 천동소리는 쇠나기 운다 하고, 장마 지면 마졌다 하고, 강가를 개역이라 하고, 병아리는 냉우리라 하고, 평의 새끼를 질우개라 하고, 솔개를 술개라 하고, 닭부르기는 조조 하고, 꽈지 부르기는 오루리 하고, 꽈지새기는 꿀풀 하고, 고양이를 곤냥이라 하고, 망아지 부르기는 허허 하고, 황소는 등구레라 하고, 벙거지는 텔갓이라 하고, 그저 잣은 벗갓이라 하고, 흥두깨는 다드미대라 하고, 팽이는 꽈지라 하고, 머리댕기는 당그라 하고, 체는 채라 하고, 바삐 걸으라는 말은 재오 걸으라 하고 또 종종 걸으라고도 하고, 오색빛을 일컫기는 흥색은 발가기라 하고, 청색은 펴러려라 하고, 황·백·흑색들은 누러려·허여여·검어어라 하여 말을 거듭 이르고, 다섯을 닷째라 하고, 여섯은 엿과라 하고, 일곱은 일쾌라 하고, 가져오라는 말은 개야오라고 하더라.

남북 면 곳에서 각기 사용하던 구두어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근접되어 있었던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런 자료는 언어 통일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할 수 있게 한다. 그 점에 관해서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같은 시기에 전국의 구두어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되어 있었던 다른 나라를 찾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835년에 프랑스어를 전

국 4분의 1정도의 지역에서만 사용했다.⁷⁾ 인위적인 노력 없이 표준화된 서사어가 전국에 보급된 것도 다른 데서는 없던 일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국왕이 통치 지역 확대하면서 표준 프랑스어를 강제로 보급했다.⁸⁾

VI. 언어 사용의 지속과 분포

문헌에서 발견되는 고어가 현재 표준어가 아닌 방언에 남아 있는 예가 많다.⁹⁾ 경상도말에서 쓰이는 것들을 몇 가지 듣다. 현행 국어사전에서는 더러 수록해도 고어 또는 방언이라고 하고, 그 둘을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삼국유사』『이혜동진』(二惠同塵)에서 “惠空... 負簣歌舞於市巷 號負簣和尚 所居寺因名夫蓋寺 乃簣之鄉言也”라고 했다. 혜공이라는 승려의 파격적인 거동을 전한 말이다. “簣”은 삼태기를 뜻하는 한자이다. “부개”는 삼태기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악학궤범』의 「정과정곡」(鄭瓜亭曲)에서 “니미 나룰 호마 니즈시니잇가”의 “호마”는 후대의 문헌에 계속 나온다.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에서 찾아 보면 “대인들이 너당의 흄아 나와시리라 호거늘”이라는 말이 있다.¹⁰⁾ “하마”는 “벌써”的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시용향악보』의 「상저가」(相杵歌)의 한 대목이 “제우즌 바비나 지썩”이다. “게꽈다”는 “더럽고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자주 쓴다.

『훈민정음』에서 “스를 여ಡ 字幢를 맹그노니”라고 했다. “맹글다”는 지금도 널리 쓰는 말이다.

『용비어천가』 제2장에서 “불휘 기픈 남근”이라고 했다. 지금 사용되는 구두어도 “나무”가 아니고 “낡”이거나 “낡”이다.

윤선도(尹善道)의 시조에서 “구름 비치 조타 혼나 검기를 조로 혼다”, 작

7) Lodge, 위의 책, 201면

8) 같은 책, 121면에 지도가 있다.

9) 이기문·이상규 외, 『문학과 방언』(역락, 2001)에서 한 작업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0) 소재영 외 주해, 『을병연행록』(태학사, 1997), 360면

자 마상 시조의 “저 남아 쁨이라 말고 즈로즈로 뵈시쇼”의 “즈로”는 “자주”라는 뜻이며 지금도 흔히 하는 말이다.

권섭(權燮)의 시조에 “하하 허허 훈들 내 우음이 정 우음가 하 어척업서 서 늦기다가 그리 되게”라는 말이 있다. “어척없어”라고 하고, “어처구니없다”라고 하지 않는다.

『을병연행록』에 “오늘 못거지는 궁즈를 위함이라”, “이런 못거디를 당호야 한 귀를 나오니 못하니 극히 붓그려 혼노라”라는 말이 있다.¹¹⁾ “궁자”(公子)는 상대방에 대한 존칭이다. “귀”(句)는 글귀이다. 이상화(李相和)의 시 「나의 침실로」에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라는 말이 있다. “못거지” · “못거디” · “목거지”는 같은 말이다. “사람들이 모여 잔치하고 노는 행사”라는 뜻으로 지금도 쓰인다.

『을병연행록』에서 다른 예를 더 찾아보자. “주인 아비 미조차 니르리”的 “미조차”는 “뒤이어”的 뜻으로 널리 쓴다.¹²⁾

“예셔부터 밥 먹기률 낫고, 더리 외입호야 둔니니”라고 한 말의¹³⁾ “외입”은 “오입”(誤入)이 혼한 용례와는 달리 “딴 짓하고 다닌다”는 뜻이다. 흔히 하는 말이다. 이것은 뜻 변화에 관한 자료이다.

“흡선호는 득 옴을 이기디 못하나”의¹⁴⁾ “흡선”(欽羨)은 한자어이지만, 구두 어로 널리 사용한다. 이것은 어휘 사용 번도수에 관한 자료이다.

문헌에서 사용된 말이 표준말에는 없고, 경상도말에 남아 있는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경상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까지 보태면 자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문헌을 더 조사하고 해당 언어를 구두어로 사용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정확한 현지조사를 해서 양쪽을 연결시켜야 한다.¹⁵⁾

고어가 방언에 남아 있다고 하면서 방언을 이용해 고어의 뜻을 밝히면

11) 같은 책, 278면, 522면.

12) 같은 책, 89면.

13) 같은 책, 53면.

14) 같은 책, 554면.

15) 위에서 소개한, 프랑스 국립국어연구원의 업적 Rézeau ed., *Dictionnaire des régionalismes de France*에서 한 작업이 그런 것이다.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표준어에 없는 말은 고어이거나 방언이라는 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고금의 말, 서사어와 구두어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힘쓰면서 어문생활사 이해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VII. 제주도의 어문생활

제주말은 본토말과 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되어 있지 않다. 제주도 사람들이 본토말을 어느 정도 익혀서 활용했던지 의문이다. 본토와 제주도의 공식적인 관계는 한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문을 아는 식자총은 반드시 있어야 했다. 국문 사용은 긴요한 일이 아니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 말과 본토말, 한문과 국문이 어떤 관계를 가졌던지 전면적으로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¹⁶⁾

탐라국에서 당나라에서 사전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 국서를 한문으로 썼을 것이고, 통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탐라국과 백제·신라 사이에도 한문 국서를 지닌 사신이 왕래했을 것이다. 제주도가 본토에 복속된 뒤에 제주도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했다. 고려 때에 고조기(高兆基)가 처음으로 문과에 급제해 중앙정계로 진출했다.

조선 전기에 이르면 향교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배우고, 현지에서 향시를 실시하기까지 했다. 제주향교의 교수 김양필(金良弼)이 지은 「명륜당판상시」(明倫堂板上詩)가 전한다. 1702년(숙종 28)에 제주목사가 되어 간 이형상(李衡祥)은 현지 사정을 다각도로 기술한 「남한박물」(南宦博物)에서 시부(詩賦)를 하는 유생들이 있어도 수준이 낮아 부끄럽다고 하면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 13인의 이름을 들었다. 장한철(張漢喆)은 향시에 장원하고 1770년(영조 46) 회시에 응시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한 내력을 「표해록」(漂海錄)에다 기술했으나, 시문집은 알려지지 않았다.

19세기말에 이르면 상당한 분량의 시집을 남긴 문인들이 나타났다. 그 선

16) 제주도민의 어문생활에 관한 논의를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서울대학 교출판부, 2003)에서 시도했다.

두에 선 김협(金浹, 1829-1894)은 전라도 나주 사람인데 1876년(고종 13)에 제주도로 이주해 약국을 열어 생업으로 삼으면서 향교의 교수 노릇도 하면서 지은 시를 제자들이 모아 「노굴시집」(老橘詩集)을 마련했다. 제주도 태생인 신흥석(愼鴻錫, 1850-1920)은 사사로이 서당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다. 남긴 시를 모아 「화암시집」(禾菴詩集)을 엮는 일을 제자들이 했다.

제주도말은 본토와 다르다고 여러 풍토기에서 말했다. 김상현(金尙憲)의 「남사록」(南僉錄)에서는 시골사람들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고, “官人及在城中者往往難澁 與湖南之士一般”라고 했다. 관가에 근무하는 인원이나 성내 거주가 가운데 이따금 난삽하기는 하지만 호남의 보통 사람들 정도로 표준 어와 가까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 사람을 통역으로 삼아 지방민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관가에 근무하는 인원은 아전을 말한다고 생각된다. 아전은 직업상 표준어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했다.

제주도에서는 역학(譯學) 교육을 했다. 1672년(현종 13년)에 총명한 사람 수십 인을 선발해 『노걸대』(老乞大), 『첩해신어』(捷解新語) 등을 가르쳤다고 했다. 역학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국문을 알아야 했을 것이다. 1687년(숙종 13년)에는 제주 사람 고상영(高尙永)이 안남(安南)에 포착했다가 5년만에 돌아와서, 그 사람을 선생으로 삼아 안남어를 가르치는 역학을 두게 되었다고 했다. 안남어 역관은 서울에는 없고 제주에만 있었다.

책을 읽혀 훈민을 하는 일도 본토에서와 같이 했다. 1693년(숙종 19년)에는 목수 이기하(李基夏) 「경민편」(警民篇)을 지어서 가르쳤다고 했다. 그 책이 널리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언해본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 뒤에 다시 제주목사 양현수(梁憲洙)가 1864년(고종 원년)에 「훈민편」(訓民篇)을 한문으로 짓고 국문으로 옮겼다. 한문본에는 구결을 달았고, 국문본에는 한자가 하나도 없다. 둘 다 그 나름대로의 독자가 있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국문문학이 이루어진 증거는 표해한 경험을 국문가사로 쓴 〈표해가〉(漂海歌)의 작자를 작품의 서두에서 무과에 급제한 제주 사람 이방익(李邦翼, 1757-?)이라고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배를 타고 본토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나 중국에 이르러 여러 곳을 돌아보고 만주를 거쳐 귀국한 다

음 입금을 만나고 벼슬을 얻은 내용이다.

제주도 사람이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고 표현이 뛰어나다. 가사의 요건을 잘 갖추고 겪은 바를 술회하는 내용을 풍부하게 갖추었다. 벼슬을 하면서 본토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런 능력을 키웠을 수 있다. 그런데 벼슬하는 영광을 연장시켜 본토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제주도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이 국문으로 쓴 작품은 더 발견되지 않았다. 더 찾아보아야 한다. 무가를 국문으로 적은 자료는 있는데 최근의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본토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일본어를 국어로 하고 교육의 공용어로 삼았다. 조선어는 부차적인 교과목으로 하다가 없었으므로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웠다.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 하고, 일본에 많이 건너간 것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1945년 광복후에 표준한국어를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제주도 말이 구두어에서 살아 있다.¹⁷⁾ 제주도 말을 작품 창작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소설의 경우에는 대화에서, 시는 작품 전편에서 쓴다. 김광협의 『돌할방 어디 감수광』, 김종우의 『사는 게 뭣 산디』 같은 것들이 좋은 예이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경우에도 어문생활의 실상과 변천 과정을 밝히는 것은 소중한 연구 과제이다. 방언의 언어학적 특징만 조사하지 말고, 사용 실태와 자세도 밝혀야 한다.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문학 창작이 있는지도 힘써 살펴야 한다.

VIII. 해외 동포의 우리말

“뒤 구석에 짹쓰 짹을 타고 안져 권연초를 피우난 청년은 큰아들 짠이오, 그 것해 셋난 쇼녀난 큰쌀 헬른이다.” “마마난 평시에 파파가 큰아들을 나물라면 쌩집힝이를 집고서서 야단을 하더니 오직 이 일에난 동의가 되엿

17)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 사투리를 들으면 친근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83.0퍼센트이고, “어릴 때 쓰던 사투리를 지금도 쓴다”는 사람이 71.4퍼센트이다.

난지”. 미국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신한민보」 1939년 7월 27일자의 「타향 살이 30년」의 한 대목이다.¹⁸⁾

“석 달 째은 범이 원을 가리겠소”, “밉다니 우쭐러가며 똥 쌌다더니”라는 말이 연변 조선족 작가 김용식(1925-1986)의 소설에서 발견된다. 작품을 연구한 사람은 그렇게 한 효과를 두고 “랑자가 각기 자기의 심리와 욕망을 표달하는 데 가장 필요한 속담들을 적중하게 이용함으로써”, “모습이 눈앞에 보듯이 생동하게 안겨오고 있다”고 했다.¹⁹⁾

해외 동포가 사용하는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한편으로는 고형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의 실정에 맞게 말이 변한다. 서사어보다 구두어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음운이나 어휘에 관해 고찰하는 범위를 넘어서 어문생활의 전반적 양상에 대한 조사연구가 요망된다.

IX. 국문 공용화의 길

1876년(고종 13)에 일본과 맺은 불평등 관계의 수교조약에 두 나라가 교환하는 외교문서에서 사용하는 글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 일본은 “기국문”(其國文)을 사용하되 10년 동안은 “역한문일본”(譯漢文一本)을 첨부하고, 조선은 “진문”(眞文)을 사용한다고 한 것에서도 불평등조약이었다. 일본은 자기네 국문을 쓰되 당분간 한문 번역본을 곁들여서 이해를 돋고, 조선은 한문을 사용한다고 했다. 10년 동안만 일본이 일본문 한문 번역본을 첨부하겠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일본문을 배우라는 말이다.

같은 글을 두고 일본에서는 ‘한문’, 조선에서는 ‘진문’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자국어를 공용어로 하면서 전에는 문이라고만 하던 것을 ‘한문’이라고 일컬었다. 조선에서는 계속 공용어로 하는 글을 ‘문’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쓸 수 없어 ‘진서’라

18)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화』 6 (월인, 1999), 1275-1276면.

19) 김동훈, 「김용직론」, 임범송 외, 『조선족문학연구』(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421면

고 하는 통칭에 근거를 두고 '진문'이라는 용어를 지어냈다.

동아시아 공동문어이고 외교문서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한문을 그대로 쓰면 불편이 없었을 것인데, 일본이 외교관행을 바꾸어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기 위해 별난 짓을 했다. 양국이 대등한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도 '기국문'이라고 한 나라 글을 공용어로 하고 일본에 주는 문서에도 사용해야 했다.

1893년(고종 29) 11월에 전봉준(全琫準)이 주동이 되어 동학혁명을 시작할 때 동지를 모으기 위해 돌린 사발통문이 남아 있다. 한 대목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 원래 국문과 한자의 이중표기를 하고, 지문과 대화를 구분했다.

右와如히檄文을四方에飛傳호니勿論이鼎沸호 았다毎日亂亡를謳歌호 던民衆드른
 처처에모여서말호 되“낫네낫네亂離가낫서”“에이총 줄 되얏지그모양대로지내서야
 백성이호 사람이누어디누며잇게”

이해를 돋기 위해 풀이를 해보자. 오른쪽과 같은 격문을 사방에 나는 듯이 전하니, 의논이 솔에서 물이 끓듯이 일어났다. 매일 난리가 나서 망하라는 노래를 부르던 민중들은 곳곳에 모여 말하되,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 모양때도 지내서야 백성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게.” 이런 말이다.

국문과 한자를 함께 쓰는 이중표기를 한 것이 전례 없는 일이다. 처음에는 한문투로 시작해서 세상에서 하는 말을 적은 대목에 이르러서는 구어를 그대로 가져온 국문투로 글을 이어나간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인용한 대목 이후까지 살피면 한문투와 국문투의 공존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화를 독립시키는 문장부호를 사용한 것도 최초의 시도이다.

이중의 표기와 두 가지 문체를 사용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격문이나 통문은 한문으로 써야 한다고 여기는 지식층과 함께, 국문이라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민중이 거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없던 시도를 했다. 양 쪽의 지지를 함께 얻어 일제히 나서도록 하려고, 자체와 학식에 따라서 나

누어져 있던 글을 하나로 통합했다.

“민중”과 “백성”이라는 두 말이 문면에 바로 나와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난리가 나서 망하라는 노래를 부르던 “민중”과 어느 하나도 남아 있을 수 없는 “백성”은 사람이 다르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 억눌리며 지내온 “백성”이 들고 일어서면 “민중”이라고 하는 의미 구분이 처음 나타났다. “백성”은 많이 보이던 말이고, “민중”은 글에 처음 나타나, 오늘날 사용하는 “민중”的 연원이 되었다.²⁰⁾

민중의 말을 그대로 적은 국문투는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 읽는 이의 마음을 바로 움직였다. 그러나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말하기 위해서는 한문투를 사용해야 했다. 인용한 대목 이후에다 적은 네 가지 조목의 결의사항은 한문 문체로 적은 덕분에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그 뒤에 동학군이 낸 격문에는 한문투도 있고, 국문투도 있다. 격문을 받아 읽을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적합한 문체를 골라 썼다.

1894년(고종 31) 11월에 동도창의소(東徒倡義所)의 이름으로 반포한 「고시경군여병영이교시민」(告示京軍與兵營而敎示民)을 보자. 표제에서 국문과 한자를 함께 썼다. 본문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국문으로 말을 이으면서, 한자 어 가운데 일부에서만 한자를 병기했다. 경군, 병영 등의 군사들을 설득하고, 백성이 민중이 되어 나서라고 촉구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에 맞서서 임금의 명의로 방문(榜文)을 내 걸 때 한문 사용의 관례를 지킬 수 없었다. 동학군의 격문을 읽고 움직인 백성을 회유하려면 같은 문체를 사용해야 했다. 한자를 약간만 병기한 국문을 택해, 원하지 않는 바였지만 글쓰기 방식에서 동학군에 동조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동학혁명과 갑오경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894년(고종 31)의 여러 달에 걸쳐 동학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갑오경장이 추진되고 진압이 끝난 다음에 완결되었다. 동학혁명에서 표명된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지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폭 양보를 한 결과가 여러 개혁으로 구체

20) 「민중, 민중의식, 민중예술」, 『한국설화와 민중의식』(정음사, 1985)에서 이에 관해 고찰했다.

화되었다. 국문을 공용하기로 한 어문생활의 변화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혁을 하고 침략의 통로를 만들었다고 비난할 것은 아니다. 개혁을 불철저하게 하고 정착시킬 힘이 모자라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을 따름이다.

국문을 공용의 글로 삼게 된 과정에 관해서 위에 든 것들과 같은 자료를 이용해 심도 있는 연구를 다시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일본이나 중국, 다른 문명권의 여러 사례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X. 사전과 작문법

한문 대신 국문을 공용의 글로 삼기 위해서 표기법을 통일하고, 문법을 정리하고, 사전을 편찬하고, 문체를 정비하고, 작문법을 개발해야 했다. 앞의 둘을 맡아서 하는 국어학이 뒤의 셋은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다. 다른 분야는 동참하지 않는다.

국어사전 편찬을 국어학의 소관사라고 여겨 문학작품에서 자료를 찾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위에서 든 연행록을 위시한 국문 실기류, 고전소설, 구비문학 자료 등에서 어휘를 찾지 않고, 현대소설마저 버려두고 국어사전을 만든다. 그런 자료를 문법 연구를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 국어학과 국문학은 독립된 학문이어서 딴 길을 가야 한다고 한 잘못이 심각하다.

한자어는 일본에서 받아들인 근대 이후의 신조어만 수록하고, 전통사회에서 국문문장 속에서 사용한 것들은 돌보지 않는다. 한자어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자어는 국어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잘못의 폐해가 심각하다.

표기법과 문체에 관한 시비가 연결되어, 한글 전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과열되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한자 혼용을 하자고 하면서 일본에서 받아들인 근대 이후의 신조어를 적는 한자어 공부에 열을 올린다. 한글을 전용하고 한자어 사용을 줄이자고 하면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는 모두 일본어이니 버려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한자어에는 (가) 중국 고전에서 유래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함께 사

용하는 것, (나) 그 말의 의미와 용법이 달라진 것, (다) 전통사회에서 우리가 만들 것, (라) 근대 이후 일본에서 만든 것, (마) 오늘날 일본과 무관하게 우리가 만든 것이 있다. “小說”은 (나),²¹⁾ “野談”은 (다)의 예이다. 순한문으로 쓴 글에서 사용한 보통명사에서 (다)가 있다. 임성주(任聖舟)의 “生意”, 최한기(崔漢綺)는 “神氣”를 자기 철학의 기본용어로 사용했다. 새로운 철학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다. (가)에서 (마)까지의 한자어를 모두 수록하고, 구분해서 설명하는 국어대사전이 필요하다.

작문법은 최재학(崔在學)의 『실지옹용작문법』(實地應用作文法)이 1909년에 나오는 데 그치고 그 뒤를 후속 작업이 없다. 오늘날 작문 교육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지만, 이론적 지침 노릇을 하는 연구가 없다. 대학에서 국어작품을 가르치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교수들이 모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최재학은 한문 작문법을 국문으로 쓰는 글에서 이어받자고 했다. 그 뒤에 등장한 문장강화류는 일본 취향을 이식해 정감 위주의 미문을 쓰자고 했다. 대학국어에서 미국 책을 번안해 논문 작법의 외형을 가르치거나 하는 시기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 한문 및 국문의 고전에서 작문의 모형을 찾고 한문 작문법을 이론 전개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XI. 마무리 삼아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대답이 있다. 맞춤법을 지켜라. 문법을 어기지 말아라. 순우리말을 찾아 써라. 논리를 갖추어라.

어학자들은 맞춤법을 제정하고 해설하고 가르치는 것을 큰 일거리로 삼아 글쓰기를 지도했다. 틀리게 쓴 것이 발견되면 준열하게 나무랐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은 맞춤법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고, 문법에 맞는 글을 써야 한다고 했다. 순우리말을 찾아 쓰라고 다그치기도 한다. 어학은 거기서 멈춘다. 논리학 전공자들이 그 뒤를 이어 맞춤법을 지키고, 문법을 따르는 데

21) 「중국·한국·일본 ‘小說’의 개념」,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지식산업사, 1991)에서 이 용어의 유래와 변천에 대해 자세하게 고찰했다.

그치지 않고 논리를 갖춘 글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필요한 요건을 다 갖추었는가? 정서법을 지키고, 문법을 따르는데 그치지 않고 논리를 갖춘 글이라도 독자를 깨우쳐주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남들이 다 하는 소리를 아무 실수 없이 되풀이하도록 하는 것이 글쓰기 교육일 수는 없다.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전에 볼 수 없던 표현을 갖추어 나타내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작업을 해야 한다.

한글을 사랑한다느니, 순우리말이 아름답다느니 하는 수작을 되풀이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의 내력이나 구조에 관한 학문 연구가 그 자체로 끝날 수 없다. 어문생활의 유산을 풍부하게 이어받아, 사상 창조의 역량을 한 층 높은 수준으로 발휘해야 한다. 우리 언어문화의 새로운 창조물이 인류문명의 앞길을 여는 통찰력을 갖출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국어의 능력을 최대한 확대하는 작업이 국어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보편적 의의가 있는 철학을 창조하는 데서 구체화된다. 나는 유럽에서 라틴어철학을 민족어철학으로 바꾸어놓은 것과 같은 과정이 인도·중국·일본에서 진행된 양상과 우리의 경우를 비교해 고찰한 적 있다.²²⁾ 다른 데서는 잘 하고 있는데 우리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앞서서 모범 사례를 이룩해야 한다.

서양철학의 용어를 순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말로 철학하는 방법일 수 없다. 한문철학을 국문철학으로 이어받아 활용하는 폭을 넓혀야 한다. 서양철학에 대응되고 반론의 의의를 가진 창조물을 내놓아야 한다. 동서의 대립을 넘어서서, 근대를 극복하는 다음 시대를 창조하는 인류의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

22) 『인문학문의 사명』(서울대학교출판부, 1997)의 한 대목 「우리말로 철학하기의 세계사적 과업」에서 그 점에 관해 고찰했다.

참고문헌

- 김동훈, 「김용직론」, 임범송 외,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 소재영 외 주해, 『율령연행록』, 태학사, 1997.
- 이기문·이상규 외, 『문학과 방언』, 역락, 2001.
-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6, 월인, 1999.
-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5, 지식산업사, 1994.
-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조동일,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 헬무트 키젤·파울 뮌히, 오용록 역, 『18세기 독일의 사회와 문학』, 춘천: 강원 대출판부, 1993.